

저수지 바닥 ‘찍찍’...단비 역부족 농작물 ‘속탄다’

농업용수 공급 안돼 ‘발동동’
“모 뿌리 못내려” 농민들 한숨
광주 저수율 48%·전남 51%
가뭄피해에 생활물가도 불안

“손 쓸 방법이 없으니 비가 언제 내리
려나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을 수 밖
에 없어요.”

광산구 하산동에서 2만㎡ 규모의 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나희주씨(73)는
메마른 저수지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
었다.

하산동 가락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벼 농사를 지어온 나씨는 올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지가 메말라 눈에
물을 댈 수 없어 속이 새까맣게 됐다.

8일 농민들이 수중모터를 설치해 눈
으로 물을 끌어오는 가락저수지는 완전
히 메말라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
져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현충일 연휴
기간동안 22~60mm의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충분하지 못한 강수량이다.

기존 수심 2~3미터에 달하던 가락저
수지는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
지면서 눈에 물을 대지 못해 ‘찍찍’ 갈
라진 논의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지하
수를 끌어올린 관정으로 가까스로 버티
고 있었다.

지난달 22일 비를 기다리다 못해 모

내기를 시작했다. 나씨는 “더 늦어질
수 없어 물을 직접 떠다가 붓기도 하면
서 일단은 모를 심었지만 1~1.5cm도 겨
우 채워 버 뿌리가 땅 속으로 잘 내리지
못하고 떠버리고 있다”고 속상해 했다.

나씨의 눈에는 얇은 물이 채워져 있
지만 농사를 짓기에 턱없이 부족해 곳
곳의 땅이 마른채 드러나 있었고, 물이
채워진 논에도 땅이 갈라져 모가 뿌리
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씨는 “최근 며칠새 비가 와서 겨우
눈에 물을 댈 수 있었지만, 눈에 물을 3
cm 정도 채워야하는데 저수지가 완전히
메말라 물이 없어 다 채우지 못했다”며
“눈에 물을 채웠다 빼는 작업을 반복해
주면 벼가 새끼치기(분얼)를 할 시기인
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
확률도 줄어든 것이다”고 우려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광주지역은 10.3mm, 전남지역은
2.6~46mm의 비가 내렸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도 불구하고 곡
성군, 구례군, 함평군은 경계 단계의 가
뭄 상태이며,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을
보이는 여수시와 장흥군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지역이 주의 단계의 가뭄 상태
다.

실제 지난 1~5월 누적강수량은 193
mm로 평년(360mm) 대비 54% 수준의 약
한 가뭄 상황이다.

또한 현재 광주지역 저수율은 평년대
비 80.4% 수준인 48.2%, 전남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8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 가락저수지에서 한 농민이 최근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물이 메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김생훈 기자

평년대비 88.7% 수준인 51.1%에 머무
르고 있다. 특히 평년 저수율 대비 현재
저수율이 50% 미만인 경계·심각단계
상태의 저수지가 광주는 52곳 중 6곳
(11.53%), 전남은 1,003곳 중 70곳
(6.98%)에 달했다.

주로 영농급수 사용되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 저수율의 절반도 못돼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씨는 “이맘때쯤 장성명에서 물을
 옮겨 저수지를 채우는데, 댐에도 물이
 충분하지 않아 못 옮기고 있다”며 “분
 얼기(가지치는 시기) 동안 기상 가뭄이
 계속된다면 소방센터에 비상 급수를 요
 청해야할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밭농가의 상
 황도 마찬가지다.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에서 33만580

㎡ 규모의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업회
 사 글로벌팜스는 지난 4~5월 고구마 모
 종을 심었다. 한창 고구마가 물을 먹고
 자라야할 시기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땅
 이 메마르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구마
 의 10분의 1이 타버렸다. 글로벌팜스측
 은 “며칠새 비가 조금 왔지만 먼지만 잠
 재우는 정도라 이 정도는 턱도 없다”며
 “비가 오지 않아 고구마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전부 타죽고 있다”고 토로했
 다. 이어 “죽은 모종을 새 모종으로 바
 꾸는 가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군청에서
 도 아무런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지 않
 아 농민들 속만 타들어간다. 이대로라
 면 수확량도 줄어들어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김혜린 기자

‘글로벌 풍력 터빈공장’ 전남 유치 청신호

베스타스, 도청서 실무협의
해남 화원산단에 부지 마련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 신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공장 유치에 청신호가 켜
졌다.

전남도와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 덴마크
베스타스는 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
에서 해상풍력 터빈 및 부품공장 설립
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관계자와 베스타스 토미
닐슨 부회장, 디어터 드후수석 부사장,
마이클 발버스 APAC 최고운영책임
자, CS윈드 김성권 회장, 한센 크누드
비아네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베스타스의 국내 투자계획 설명과
전남도의 터빈 및 부품공장 설립 지원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토미 닐슨 부회장은 “베스타스의 한
국시장 진출을 최종 결정하기 전 전남
도의 해상풍력 추진상황과 공장부지 여
건 등을 확인하고 투자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전남
에 풍력터빈 및 부품공장을 세우기 위
해선 연간 터빈 발주물량은 물론 항만,
배후부지, 주변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은 신안,
여수, 영광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사
업이 진행 중으로 35개 사업, 8.7GW의
발전사업 허가가 나 있다”며 “이는 국
내 최대 물량으로, 전남의 해상풍력 시
장 잠재력이 전국 최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스타스에서 요구한 공장부
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해남군,
대한조선과 함께 화원산단 조기 개발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고, 5월에는 KHI
인베스트먼트에서 대한조선 경영권 인
수를 완료한 만큼 화원산단 개발이 속

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베스타스는 올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그동안 해상풍
력 상호 협력을 위해 좋은 관계를 지속
해서 유지했다”며 “전남이 터빈공장 설
립을 위한 최적지인 만큼 이제 그간 노
력의 결실로 베스타스의 전남 투자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실무협의 후 토미 닐슨 부회장 등 베
스타스 투자실무단은 해남 화원산단을
방문했다. 베스타스 투자실무단은 잠재
적 터빈공장 입지 및 접근성 등 투자여
건을 확인하고 대한조선의 화원산단 개
발계획 설명을 들은 후 화원산단이 계
획대로 개발된다면 터빈공장 부지로 손
색이 없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베스타스는 세계 1위인 덴마크 풍력
터빈 기업이다. 2020년 기준 점유율은
17.4%이다. 15MW급 해상풍력 터빈
및 부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위한 투
자를 검토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

김영록 “현안해결, 시·도지사 담판방식 안돼”

“상생 과제·현안 나눠 대응”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광주·전남
현안 해결을 시도지사가 담판하는 방식
이 아닌 실무진의 사전소통을 통해 먼
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도청 기자실을 찾아 “광주·전남 상생협
력을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취임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현안과 상생 과
제의 논의결과
를 최종 승인하
는 기구”라며
“위원회에서 안
건으로 논의하
기 전 양 지사가
충분히 소통하
고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
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과제와 현안을 나눠서 대
응해야 한다”며 “양 지역의 뜻이 부합
하는 사업들은 상생 과제로 올려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의견이 다른 현안들은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와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을 상생 과제로 풀 수 없는 것”이
라며 “현안으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
로 옮겨 오는 것도 급선부수 아니다”며
“광주 군공항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진한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길용현 기자

www.gjto.or.kr

GJTO 광주관광재단
Gwangju Tourism Organization

HOTEL

LET'S M.I.C.E!

GWANGJU

출장에서
여행으로

국제회의의 최적의 도시 광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ART OULETS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의 또다른 이름, 광주마이spark
광주는 상상하던 MICE 행사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특히 광주마이spark는
세계적인 MICE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국제회의 특화지구입니다.

GWANGJU
MICE PARK
광주 마이 스파크